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窓

# 창

2023 | 봄 vol.60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2022  
Hwan

# 고향사랑

광주동구

# 기부제

기부자도, 지자체도, 지역민도  
모두 혜택 받는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발적으로 태어난 고향, 마음의 고향, 연고가 있는 지역,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를 선택해 기부금을 납부하면, 지자체는 기금(고향사랑기금)으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개요

기부자	개인(법인, 단체, 이해관계자, 타인 명의자 등 불가)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한도액	개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혜택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제공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이하 전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공제

전액 16.5% 공제

0원 이하 ← 10만원 → 초과 500만원

기부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라인납부	고향사랑e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문납부	농협





박구환, In full bloom M221228, 53×40.9, oil on canvas, 2022.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동대학원 순수미술과 졸업  
개인전 44회(서울, 부산, 대전, 전주, 울산, 광주, 후쿠오카, 동경, 뉴욕, 말레이시아, 카오슝, 대만)

2		<b>'창'을 열며</b> 인간성을 파괴한 '광기'가 또 나타난다는 말인가?	김덕진
3	<b>특집 기획</b>	<b>아문도시 정착을 위한 쟁점과 풀어야할 과제</b> ACC 통합조직 출범 이후 1년, 제대로 가고 있나?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착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활성화 방안 두 개의 시선으로 만나는 상무관 '검은비' 해법! 1) 검은비 어떻게 할 것인가? 2) 상무관, 통곡하는 쌀	이승권 김기곤 지형원  홍성철 주 흥
14	<b>문화 + 人</b>	<b>문화인 인터뷰   박병주 생채복춤보존회 내드름 대표</b> 북 메고 恨품은 신명난 춤사위로 외길인생 걸어가다 <b>현장 이야기</b> 더 글로리가 좋은 드라마인 이유 그리고...	김혜라  김도연
22	<b>연재 코너</b>	<b>고전신화 이야기</b> 텅그리와 부르한 1	김상윤
25	<b>기획 연재</b>	<b>건축과 광주문화</b> 도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신응주
28	<b>문화 공감</b>	<b>진단</b> 광주실감콘텐츠큐브 100일, 활성화 방안 광주목 관아 희경루(喜慶樓)의 연혁	주정민 천득염
32		<b>리뷰 &amp; 프리뷰</b> 43주년을 맞이하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 동시대 화두, 여성, 광주정신, 그리고 연대	박상은 조사라
38		<b>문화특</b> 길을 잃어버린 사랑을 염려하는 정한(淸恨)의 처방	정철웅
40	<b>포토 에세이</b>	<b>김옥열의 포토에세이</b> 선수 구합니다	김옥열
42		<b>재단소식·함께하는 사람들</b>	편집부
48		<b>김향득의 영상기행</b>	김향득

# 인간성을 파괴한 ‘광기’가 또 나타난다는 말인가?

김덕진 재단 이사장, 광주교육대 교수



역사를 가르치면서, “역사를 왜 배워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는 나 자신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다. 이에 대한 소박한 답변은 현재를 올바르게 사는 데에 역사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역사를 배울 가치가 있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치열한 삶을 실감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역사를 모르면 잘못된 ‘열정’이 반복된다는 점도 역사를 가르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폭력·전쟁·탄압·납치 등 인간성을 파괴한 ‘광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모두 역사를 모르고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역사의 연구와 교육 모두 중요하다 여겨진다. 과거 몇 년 전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7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여 정부가 큰 곤경에 처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정부는 ‘국정 교과서’를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강제 동원이 없었다’는 일본의 강변에 전혀 대응할 수 없고, 강제 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빠지고 피해자가 피해자를 보장하는 어이없는 꼴이다. 변화가 없는 한 정부가 큰 홍역을 치를 것 같다.

근래 ‘바른 역사’ 운운하는 단체가 광주를 근거지로 하여 탄생할 것 같다. ‘바른’ 자체가 정성적 표현이어서 무엇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알 수는 없지만,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멀쩡한 사람들을 자괴감에 빠져들게 하지 않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과하면 아니 한만 못하다는 말이 떠올라 하는 말이다.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 아문도시 정착을 위한 쟁점과 풀어야할 과제

통합 문화전당 출범이후 문화전당이 활력이 넘치고 지역과의 소통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는 평입니다. 다만, 문화전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역점과제는 당초 계획에 비하여 진척률이 낮아서 아직은 갈길이 멀다는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이번 특집기획에서는 현 단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추진 과정의 풀어야할 과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작은 담론이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다양한 담론으로 이어져,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 데 큰 울림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 ACC 통합조직 출범 이후 1년, 제대로 가고 있나?

이승권\_ 조선대학교 교수

-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김기곤\_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착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활성화 방안

지형원\_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회장

- 두개의 시선으로 만나는 검은비 해법

- 1) 검은비 어떻게 할 것인가?

홍성철\_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2) 상무관, 통곡하는 쌀

주홍\_ 치유예술가

# ACC 통합조직 출범 이후 1년, 제대로 가고 있나?

문화도시 광주의 꿈을 안고 출범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고, 아시아문화전당(ACC)의 출범으로 문화도시 사업이 본격화된 지도 10년이 되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ACC를 중심으로 생산된 문화자산을 광주 전체로 확산하여 궁극적으로 광주를 문화도시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러한 점에서 ACC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더 중요한 점은 광주가 추구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사업(Media Arts)과의 연계성이다.

ACC가 출범 당시의 조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한 정부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023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목표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직통합의 성패를 논하기에 1년은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ACC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통합된 조직의 목표와 비전이 전당의 설립 목적에 맞게, 광주의 도시 비전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

ACC가 발표한 자료[통합전당 출범 이후 주요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2022.08)/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2022~2028년) 등]에 따르면 ACC 사업의 많은 부

분이 개선되었고 의지가 확고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계획들이 용두사미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크게 신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인정할 만한 성과가 나타난 것도 분명하다. 그것은 ‘문화전당의 인지도 제고’와 ‘고객 중심의 관람환경 조성’이다.

늦었지만, ‘아시아 문화교류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ACC 특화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전당/한예중/광주시 협력 지역예술인재 육성’, “‘도시문화’를 주제로 한 ACC 특화 콘텐츠” 등, ACC와 지역이 공유하고 상생하는 계획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중심으로 볼 때, 일단 통합 출범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성급한 감이 있어서 ACC가 발표한 도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아래의 제시된 비교표를 보면 전당의 통합이 가져온 효과가 무엇인지는 명료하지 않다. 여전히 아쉬운 점은 광주의 도시비전과 ACC 프로그램의 연관성 문제이다.

새롭게 등장한 전당재단은 수익사업을 위해 신설했는데, ACC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겠는가? 문화예술기관이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인가? 국가기관이라는 틀을 유지한 채, 인구 150만의 도시에서, 산

업기반도 열악한 지방에서, 민간 영역의 성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다. 이러한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ACC의 시공간적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시공간의 측면에서 ACC가 광주의 공간이고 광주 시민의 시간으로 수용되는 과정이지만 장소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부족했다. 우리가 ACC를 받아들인 시간과 공간이 장소성과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5·18의 진정한 의미가, 5·18의 승화된 정신이 ACC에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 제시된 바 없다. 그러한 점에서 ACC의 정체성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러한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제시된 ACC의 방향성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인데, ACC의 방향성은 조직의 통합과 관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한 점은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세부 계획과 성과의 확산, 공유, 프로그램의 지속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광주가 추구하는 도시비전과 지속가능개발의 관점에서 개발해야 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지속가능개발이란 무엇일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역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광주만이 아니라 호남을 아우르는 지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ACC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ACC의 태생적 한계인지도 모른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확신이 없는 지역문화의 발굴과 콘텐츠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현재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시켜 단기적 평가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ACC가 특정 단체나 특정 예술의 전유물이 아니고 시민과 공감하는 문화예술기관, 문화도시 광주의 핵심 문화예술기관, 예술

인의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기관이 되려면 열린 자세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산업기반이 빈약한 150만 도시에서 국가가 문화예술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화예술기관의 특성에 맞는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ACC의 운영에 적용될 수는 없는가? 시민들도 ACC 전문가를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기관이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천력이다. 이제라도 ACC는 국가기관에 안주하지 말고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예술가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문화예술이나 기관의 성과를 1년이 지난 시점에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직의 성과가 통합과 분리의 문제라면 벌써 답이 나왔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점검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을 뿐이다. ACC가 제시한 새로운 계획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ACC도 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데이터로 제시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당위성을 입증하기 바란다. ♪



이승권 조선대학교 교수

#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2028년 완료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를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도시로 만드는 국가 주도 문화 프로젝트이다. 조성사업의 유무형의 기반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자리 잡고 있는 옛 전남도청 일대의 역사적 경험과 그를 통해 형성된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문화전당 건립 때부터 도청을 원형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수많은 논의 결과, 2025년까지 도청을 원형 복원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도청 본관, 도청 회의실, 상무관, 경찰국 민원실, 연결통로는 모두 원형 복원하고, 도청별관과 경찰국 본관은 안전성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일부만 복원할 계획이다. 복원된 도청에는 고증을 통해 서사적 전시 콘텐츠가 채워진다. 1980년 당시 상황과 자료를 토대로 공간별 실물 또는 가상 콘텐츠를 구현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 세대와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도청 복원은 단지 역사에 대한 사실적 재현,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도청 일대를 기반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문화전당은 복원된 도청을 품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점에

서 본다면, 문화전당은 여전히 미완성이고 건립 중인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 도청의 역사성을 문화예술적 가치로 확대 계승하기 위한 이른바 ‘5·18의 문화화’ 전략이 본격적인 실험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도청을 문화전당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해야 한다. 2022년 발표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2023~2027)’에도 문화전당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는 도청 복원에 대한 구상이나 제안은 없다. 도청은 그 자체로 ‘1980년 5월’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문화전당과의 관계 속에서는 보자면, 도청은 문화전당을 지탱하는 가치이자 문화전당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원의 공급처이다. 그만큼 문화전당은 도청과 함께 인식해야 더욱 풍성한 문화적 의미를 지닐 수 있고, 도청도 5·18의 기억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시켜 갈 수 있다.

복원 공간의 전시콘텐츠 구성에 대한 의견을 모아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도청 복원에 대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원형 복원된 도청’은 조성사업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복원 이후 이



도청은 문화전당을 지탱하는 가치이자 문화전당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원의 공급처이다. 문화전당은 도청과 함께 인식해야 더욱 풍성한 문화적 의미를 지닐 수 있고, 도청도 5·18의 기억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시켜 갈 수 있다. 이제는 모호한 ‘아시아적 가치’ 속에서 벗어나 5·18의 의미를 문화예술적으로 재현하는 상징적인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아야 한다.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도청 복원 이후 문화전당과 복원공간 사이의 문화적 관계 설정, 복원공간의 콘텐츠 운영,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방식 등에 관한 계획을 지금부터 논의해 가야 한다.

복원된 도청공간은 조성사업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미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도청 복원으로 조성사업은 비전, 철학, 사업이 상호 연결되는 완결된 의미체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서 밝힌 “인간 중심의 도시, 억압과 소외가 없는 평화·인권의 도시, 열린 소통의 도시”라는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이 더욱 뚜렷해 질 수 있게 된다. 문화전당의 핵심콘텐츠 부재 상황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도청공간과 관련된 전체 서사, 각각의 공간들 속에 담긴 의미들 속에서 핵심콘텐츠는 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청 복원 과정 자체가 5·18을 계승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 곧 전시 등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도청 복원 작업이 본격화하는 지금부터 광주시와 지역사회가 ‘5·18의 문화화’ 차원에서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도청 복원을 계기로 ‘5·18의 문화화’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다. 문화를 통해 도달해야 할 ‘문화사

회’에 대한 전망을 이념적으로 풍부하게 할 수 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전당의 핵심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문화상품으로 유통하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5·18 콘텐츠’는 고유하고 독자적인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제는 모호한 ‘아시아적 가치’ 속에서 벗어나 5·18의 의미를 문화예술적으로 재현하는 상징적인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아야 한다. 복원된 도청에 전시 공간이 마련되면 5·18 콘텐츠는 문화전당의 핵심적인 전시 콘텐츠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를 계기로 5·18을 하나의 문화원형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문화전당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역의 주체들과 협력은 전제 사항이 되어야 한다. ♪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광주 총괄지원연구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착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활성화 방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시민의식이 먼저다

참으로 먼 길을 돌아온 것 같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될 때, 그리고 전당이 착공될 때 많은 시민들은 광주가 시드니나 파리, 스페인 빌바오 같은 문화도시가 되리라는 기대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이었고 일련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광주가 큰 짐 하나를 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걱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다행히 지난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기간이 2023년에서 2028년까지로 5년이 늘어나고 전당의 국립기관 존속, 전당재단 출범, 그리고 개관 7년여 만에 직무대리가 아닌 전당장이 부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뭔가 잘해보려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까지 변화를 이끌어 온 데는 광주시와 지역의 정치권, 시민사회의 노력이 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및 아특별 개정을 위한 시민협의체’를 결성해 정부를 향해 꾸준히 대안을 제시하고 투쟁하는 등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아특별이 개정되고 전당장이 부임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시민협의체는 다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착을 위한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여 앞으로 남은 5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활성화 시민연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관광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실무진들이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문제점을 찾아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찾고 있는 중이다.

민·관·정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협약서에는 첫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두어 참여 주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셋째, 협의체는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 등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다르다는 생각이다. 우선 정책개발 문제는 전문가 집단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매년 신규사업발굴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산 확보 문제는 광주시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것이며 정상화시민연대 측에서는 광주시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노력이 뒤따랐으면 한다. 전당재단이나 광주문화재단, 광주관광재단, 광주정보산업진흥원 등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지역사화 속에 녹여낼 것인가를 연구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생산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술인들도 할 일이 많다. 지역의 예술인들이 전당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쿼터제 같은 제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지역에서 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 무안 일로에서 시작되었던 ‘폼바’라는 작품을 서울의 ‘모던 테이블’이라는 현대무용단이 무언극으로 만들어 러시아 제홉페스티벌에서 최고상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해서 최고의 작품, 킬러콘텐츠 하나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선행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시민들의 문제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된 지 8년째로 접어들었지만 광주시민 가운데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라고 한다. 먹고살기 바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문화도시의 시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

는 도시의 문화와 예술인들을 사랑할 줄 안다. 값비싼 공연을 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거나 그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출연자 개인들의 스토리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러시아 생 페테르부르크 발레극장에서 일하는 청소부가 그날 공연작과 출연자들을 설명할 정도로 깊은 상식을 갖췄고 청소를 하면서도 발레극장에서 일하는 문화시민이라는 자긍심이 대단 했다.

문화전당이 지어졌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시민들이 많아질 때 진정한 문화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8천억이 넘는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대중가수의 공연만 되풀이할 수 없지 않은가. 전당의 품격에 맞는 작품을 통해 문화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어려서는 아역을 맡고, 젊어서는 주인공이 되어보고 늙어서는 노인 역을 하거나 대표원으로 일하면서 문화전당과 함께 늙어가는 아름다운 도시 광주를 꿈꿔 본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발짝 문화전당으로 걸어가자.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가까운 사람의 손을 잡고 문화전당의 하늘정원과 분수대를 거쳐 전일빌딩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보자. ♪

지형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회장



## ‘검은비’ 어떻게 할 것인가?

‘검은비’는 1980년 5·18민중항쟁 희생자들의 넋을 기르는 의미를 담아 오월 희생자들이 대규모로 안치된 장소였던 상무관에 설치된 추모비 성격의 정영창 작가의 설치 작품이다. 2018년 38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행사위)가 주최한 ‘오월 지킴이와 영원의 노래’ 메인 작품으로 광주민족미술인협회 작가들의 오월 어머니들(5·18 유족)의 초상화 10여점과 함께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시하는 상무관 프로젝트다. 당시 이당금 배우의 씨김굿으로 행사개막을 알리며 상무관 프로젝트의 의미를 더 해 주었다.

‘검은비’는 2018년 6월 17일 상무관 프로젝트가 종료되자 광주시의 요청에 의해 광주비엔날레 전시 기간에 맞춰 2018년 7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차 연장 전시가 이루어 졌고,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9년 5월 51일까지 작품보관 요청에 의해 보관되어 있다가 2020년 5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40주년 5·18행사위의 상무관 개방행사 요청으로 두 달간 전시되었다.

이 시기에 ‘검은비’가 상무관에 설치되고 3차에 걸쳐 연장 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2016년부터 개관하게 되어 있던 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본관, 별관, 회의실과 옛전남경찰국, 경찰국 민원실 등)이 옛전남도청 원형복원 투쟁으로 개관

과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7년 옛전남도청 원형복원 정부방침이 확정되면서 복원공사 전까지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상무관을 포함하여 모두 5관으로 구성)을 개방하는 아시아문화전당(2018년 관리주체는 아시아문화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1관부터 4관까지 1980년 5월 10일간의 항쟁과 서사를 담은 황지우 작가의 ‘열흘간의 나비떼’를 중심으로 기념관의 특징에 맞게 상설전시가 이루어지고, 특히 3관인 옛전남도청 회의실에서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전시와 공연이 개방 시기에 맞게 한시적으로 전시, 공연되었다. 기념5관인 상무관은 추모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입구에 분향과 헌화를 할 수 있게 분향대 설치를 추진하던 차에 5·18행사위의 요청에 의해 정영창 작가의 ‘검은비’를 메인으로 한 ‘오월 영혼의 노래’가 전시되게 되었다.

‘검은비’ 철거, 존치 논란이 불거진 것은 3차 연장 전시가 끝나고 작품 회수 시기인 2020년 8월 지역 언론에 ‘검은비 광주시에 헌정하겠다’는 기사가 나오고 광주시의 거부 입장이 밝혀지면서 부터다. 논란 2년 반 동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하던 차에 2022년 11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정영창 작가의 광주방문을 계기로 논란이 증폭되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돌이켜 보면 사실 철거, 존치 논란은 2018년 7월 1

차 연장 전시 때부터 이미 진행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무관 프로젝트' '검은비' 전시나 특히나 연장 전시는 옛전남도청 복원사업과 연계된 민주평화교류원의 운영과 전시 계획에 애초부터 없던 사안이고, 상무관 외의 다른 기념관에서 이루어 졌거나 진행된 여러 전시와 공연들은 계획대로 개방과 전시가 끝나면 다음 계획대로 진행된 반면에 지속적인 '검은비' 전시 연장 요청은 매우 이례적 사안이었다. 때문에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시의 연장 요청때 마다 난색을 표했고, 그때 마다 전시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회수한다는 약속과 확인서도 받았다. 문화전당으로서는 3차에 거친 연장전시가 부담이었고 연장이 거듭될수록 약속과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3차 연장 시기에는 작가에게 각서까지 별도로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때까지는 철거와 존치 논란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약속 이행과 책임, 신뢰의 문제였다.

철거, 존치 논란으로 전면화 된 것은 3차 연장전시가 끝나고 '광주시민에게 헌정했다' '광주시는 기증 거부 하겠다'에서 '광주시가 책임져라'를 거쳐 '처음부터 상무관 존치를 염두에 두어 두고 창작했다'로 논란이 증폭되면서 현재는 '철거해야 한다', '존치해라'라는 대치적 논란 속에 합리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서로가 오월정신을 거론하며 서로의 논리를 정당화 하고 있지만 논란이 진행된 2년 반 동안 광주시를 중심으로 이해 당사간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진득한 설득, 합리적 토론과 공론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언론을 향해 목소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 2월 28일에야 처음으로 공개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과 논리를 대면해서 분명하게 확인한 정도다.

'검은비' 논란에 대한 그동안 경과를 굳이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그동안 진행된 과정 안에 해결점이 있어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거냐? 존치냐?"의 논란은 '검은비'의 작품성과 미학적 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진행 경과에서 살펴봤듯이 공유 공간, 공적 공간 이용과 활용에 대한 책임과 약속, 신뢰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논란과 대립이다. 논란의 본질이 가치 판단을 둘러싼 논란과 대립이 아니다. 즉, 상무관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부합한 작품의 예술성, 미학적 가치 논쟁이 아니다. 문제해결의 우선순위, 즉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본질이다.

철거를 주장하면 예술적 감성이 떨어지거나, 미학적 안목이 부족하거나, 나아가 작가와 작품을 폄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 철거 주장과 행정당국의 방침을 행정편의주의로만 치부해서도 안 될 일이다. 5·18행사의 주최의 상무관 프로젝트도, 광주시의 전시 연장도, 아시아문화전당의 전시 승인과 후속 마무리도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러한 행정행위는 최소한 공정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시민적 협약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은비' 논란의 해법은 작가가 처음부터, 그리고 3차례에 걸쳐 약속하고 협약했던 대로 전시기간이 끝난 만큼 하루 속히 회수해야 한다. 이것이 먼저고 우선이다.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할 대목은 '검은비'의 가치를 인정하고 어떻게 더 활용할지? '검은비'를 통해, 또 '검은비'와 같은 예술적 영감을 어떻게 더 널리 확산할 수 있을지가 아닐까? ♪



홍성철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상무관, 통곡하는 쌀

광주 민주광장 근처에는 상무관이 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10일간의 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의 시신을 보관했던 곳이다. 태극기에 덮인 관이 가득 놓여있었고 통곡 소리와 향냄새가 진동했던 상무관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시신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필자는 중학교 1학년 5·18 당시, 집에 오지 않는 언니를 찾아 그 상무관을 갔었다. 언니가 저 관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 뻑뻑한 관들과 향냄새, 가족의 시신을 찾고 관을 붙들고 우는 통곡 소리를 잊을 수 없다.

38년이 지난 2018년, '검은비(碑)'가 상무관에 전시되기 전까지 상무관 근처는 가지 않았다. 가슴이 뛰고 무서웠다. 2018년 5월, 상무관의 장소성을 살려 정영창 작가의 '검은비(碑)'작품이 전시되고 이당금 배우의 씻김 퍼포먼스에서 시민들과 함께 울고 흰 쌀 한 봉지를 받아 나오며 다시 상무관을 찾을 수 있었고 무서움도 사라졌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정영창 작가가 상무관이라는 장소에 맞는 작업을 하기 위해 쌀 한 알 한 알에 검은 유화물감을 칠해서 붙인 가로 8.5m 세로 2.5m의 스케일의 작품, '검은비(碑)'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힘이 있었다. 멀리서 보면 깊은 블랙에 압도되는 추상 작품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쌀알 하나하나가 검은 광택

을 내며 빛에 따라 반사되어 헤아릴 수 없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독일에서 인권 화가로 활동하는 정영창 작가는 낯선 유럽에서 아시아인, 한국인으로 외롭게 작업하며 살았다. 쌀이 주식인 민족, '쌀'은 생명을 상징하는 정영창의 메타포가 되었다. '검은비(碑)'는 한 알의 쌀이 한 사람이 되고 쌀 한 톨이 별이 되어 존재를 드러내며 빛나고 있었다. 마치 민주광장에 모인 광주시민들처럼, 마치 광화문을 가득 채운 촛불 시민들처럼! 시민들은 감탄했고 저절로 눈물을 흘렸다. 그 작품 앞에서 내면의 씻김을 경험했다. 코로나로 작고하신 미술평론가 성완경 선생님도 '검은비(碑)'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작품이라고 감탄하셨고, 광주의 대표적인 시인, 김준태 시인은 광주의 영혼이 깃든 상징적인 몸이라고 하시며 상무관에 '검은비(碑)'는 존치에 앞장서서 철거를 막고 있다.

이 '검은비(碑)' 작품을 상시에 볼 수 있게 상무관의 문을 열어준다면, 필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혹은 개인적으로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울고 싶을 때 '검은비(碑)'를 찾아가 울었을 것이다. 광주에는 통곡의 장소가 필요하다. 정말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곳, 상무관은 통곡할 수 있는 곳 씻김의 장소다. 그 통곡으로 다시 살아낼 힘을 얻고, 오

월 영령들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장소로 상무관만큼 맞는 장소는 없다.

정영창 작가는 ‘아무 대가 없이’ 광주시민에게 ‘검은비(碑)’를 헌사 했다. 그런데 광주시가 받지 않은 것이다. ‘이미 시민의 것’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그러면 다시 상무관을 열고 시민들에게 ‘검은비(碑)’ 작품 관람의 기회를 주고 시민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작가는 이미 시민의 것이라고 하니 시민들이 찾아가 볼 수 있게 오픈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검은비(碑)’ 작품을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관리 당사자인 아시아문화전당은 다시 상무관을 개방하고 직접 작품을 마주하고 시민이 판단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필자는 그 작품을 직접 봤기 때문에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 작품을 본 적이 없는 시민들은 그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후손에게 남길 명작을 스스로 파기하는 어리석은 일을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면, 무엇을 복원하려 하는가? 그 내용이 궁극하다. 복원 사업을 이유로 정신과 보물을 폐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월부터 복원공사가 시작된다. 시간이 없다. 광주 시민들에게 작품을 직접보고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작가가 아무 대가 없이 시민에게 헌사 한 영혼이 깃든 작품을 법의 잣대만 들이밀며 헌신짝 취급하는 행태가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깝다. 

- 2018년 5월 18일~6월17일, ‘5·18 38주년 특별전’으로 검은비 전시-공연예술계약서 작성.
- 2018년 9월~11월,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작품으로 사용됨-전시참여승낙서 작성.
- 2018년 11월 22일, 2019년 5월까지 검은비를 상무관에 존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작성.
- 2020년 3월 30일, 광주시가 5·18행사위원회에 검은비 이전 요청 공문 발송.
- 2020년 4월 3일, 5·18행사위원회에서 12월까지 검은

비 전시 및 안내판 설치 협조 요청.

- 2020년 4월 12일, 무등일보에 정영창 작가의 검은비 기증 의사를 광주시가 보관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기사가 나옴.
- 2020년 4월 14일, 아시아문화전당이 5·18행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12월까지 검은비 전시 연장 및 안내판 설치하기로 함.
- 2020년 6월 3일, 아시아문화전당이 12월 전시종료 후 검은 비를 이전하라는 공문을 5·18행사위원회에 보냄.
- 2020년 8월 3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에서 검은비 보존 요구 성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5·18기념재단에서 실무자의 착오였다고 성명서를 부인.
- 2020년 8월 7일, ‘옛전남도청복원대책위원회’ 위원장 단회의에서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검은비 철거 만장일치로 합의.
- 2020년 8월 9일, 위 내용을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보도 자료란에 고시.
- 2020년 9월, 광주시가 독일의 정영창 작가에게 작품 철거 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지 작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거부.
- 2022년 9월, 광주시가 임시 귀국한 작가를 두 번 만나 작품 회수 요청.
- 2022년 10월 11일, 광주시와 옛도청복원추진단이 정영창 작가와의 대화 자리에서 철거요청 내용증명 전달.
- 2022년 11월 22일, 변재훈 5·18 42주년행사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영창 작가에게 2018년에 작성된 ‘전시참여승낙서’와 ‘이행각서’에 따른 철거 약속 이행 촉구.



주홍 치유예술가



# 북 메고 恨품은 신명난 춤사위로 외길인생 걸어가다

김혜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간사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로 계신 박병주 대표님은 회의를 통해 자주 뵈었다. 여러번의 만남을 통해 광주 농악의 이야기를 풀어내주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품이 넉넉한 생활한복 차림에, 늘 인자한 표정과 따뜻한 시선으로 안부 인사를 건네주셨던 분. 늘 업무적으로 얼굴을 비추며 아쉬운 마음을 남겨놓았는데, 지금껏 모인 아쉬움들이 오늘에서야 큰 반가움으로 바뀔 수 있었다. 앞장서는 발걸음을 따라 한쪽에 복과 장구가 가득 놓여있는 연습실 공간으로 걸어 들어갔다. 서늘한 겨울공기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차가 조금씩 끓기 시작했다.

**김혜라(이하 김)** 안녕하세요. 인터뷰로 대표님을 꼭 뵙고 싶었는데 다행입니다. 처음 접하는 독자 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병주** 안녕하세요. 쌍채북춤보존회 내드름 대표 박병주입니다. 저는 사학과를 전공해 1978년 후반부터 2015년까지 고등학교 선생님이로 교직에 있었고요. 그러던 중 아이들의 요청에 따라 풍물을 접하게 됐어요. 그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진도북놀이 무형문화재 제18호와 진도소포농악의 설북춤 제39호 이수자가 된 나이 많이 먹은 국악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학생들의 권유로 시작을 하셨다고요?

**박** 권유가 아니라 상당한 저항성이 있는 요구였죠. 그때 광주에는 풍물패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역사 선생님이라면 풍물을 가르쳐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강력한 요청으로 198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선생님들끼리 배우며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추어다보니 소문도 안 나고 실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양태옥 선생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조금씩 배우며 가르치게 됐죠. 그렇게 광주 최초의 고등학생 풍물패 ‘한얼’이 탄생했어요.

**김** 학생들의 요청에 흔쾌히 응답한 선생님이셨네요. 현재 대표님이 몸담고 계신 ‘내드름’은 쌍채북춤보존회인데요. 우선, ‘쌍채북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저에겐 많이 생소한 단어거든요.

**박** ‘쌍채’니까 채를 두 개 들었다. ‘걸북’이니까 어깨에다가 땀다. 진도에서 뿔었으니까 ‘진도북춤’이다.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진도북춤, 진도북놀이, 쌍채북춤, 걸북춤은 결국 다 같은 의미의 용어예요. 저를 가르치셨던 운제 양태옥 선생님께서 ‘쌍채북춤보존회’라는 명칭으로 그 당시 광주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1987년이 되는 해에 ‘진도북놀이’라는 명칭으로 지춘상 교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때는 전남·광주가 합쳐져 있을 때라 지역명의 한계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분리가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간판을 내걸고 하는 건 ‘쌍채북춤보존회’였기에, 저희도 처음엔 ‘진도북(춤)놀이보존회’로 쪽 운영을 해오다가 2022년도에 ‘쌍채북춤보존회’로 명칭을 바꿨어요. 제가 북을 30년 이상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 나름의 북춤이 되었기에, 양태옥 선생님을 뜻을 따라 쌍채북춤보존회 내드름으로 바꿨죠.

**김** 뜻은 동일하지만 지역성이 사라졌다는 점이 다르네요.

**박** 그렇죠. 북놀이 문화재가 양태옥, 박관용, 장성천 이렇게 세분 계시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운제 양태옥 선생님께서는 광주에 계셨어요. 광주와 전남이 나누어지면서 ‘진도북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고민이지 않았나 싶어요. ‘진도’라는 말을 쓰려면 진도로 가야하지 않느냐라는 소리도 좀 있었고. 그래서 ‘쌍채북춤’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진도를 벗어난 광주지역의 특성으로 발전을 해 온 거죠. 지역성을 탈피했다고 봅니다. 진도북춤은 진도에 제한되었다면, 쌍채북춤은 조금 더 포괄적이고 창의적인 개념으로 발전해왔어요.



**김** 그렇다면 전라도 외에도 쌍채북춤이 있나요?

**박** 경남쪽에 가면 훨씬 많아요.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진도북춤은 진도에 제한된 의미를 가지지만, 쌍채북춤은 지역성의 한계가 없으니 발전적 방향으로 본다면 더 의미가 있죠. 경상도는 한손으로 치는 외북이 있다는 점은 차이가 있네요. 북은 전라도보다는 경상도에서 더 발전했어요.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진도북놀이(제18호, 양태옥류)와 진도설북춤(제39호, 김내식류) 이수자로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나 장르의 제한에 차이가 있어요. 진도북놀이는 그 자체로 장르고, 진도설북춤은 진도소포농악 안에 있는 농악북이에요. 진도북놀이에는 농악도 들어가고, 제사 때도 하고, 장례식에서도 하는 등 행사에서 주로 추고요. 진도소포농악의 설북은 농악 할 때만 추는 거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둘 다 같은 상황에서 많이 쓰이고 선생님들도 모두 같이 다녀요. 용어가 여러 갈래로 많이 나뉘어져 있는 편이에요.

**김** 저는 그 점이 가장 궁금했어요. 무형문화재는 사람을 통해 전수받아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스승과 교육에 따라, 자신의 개성에 따라서 문화재에 차이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박**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역사성과 전통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계속 이어져 내려와야 해.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줬던 그대로를 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놀이는 ‘즉흥성’이고 ‘현장성’이에요. 북도 결국 굿거리, 자진모리, 당악, 휘모리, 뒷굿거리 이것들이 일반적인 순서를 이루고 있을 뿐, 선생님들도 춤을 추실 때마다 즉흥적으로 순서 없이 신명나게 추는 것이 우리 쌍채북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형화된 틀 없이 자유롭게 추게 되는데, 오랫동안 선생님한테 배우면 젖어드는,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는 전통의 학습이 들어있어요.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밥 먹고 생활하면서 크는 것처럼 삶 속에 녹아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의 전통과 학습이 진정한 문화재인거예요.

**김** 이야기를 듣고 보니 문화재의 의미가 새롭게 보이네요.

**박** 쌍채북춤은 원래 마을에서 했던 춤이에요. 개개인의 사람이 가진 기술이라기보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고 추는 춤, 하나의 공동체문화라는 개념이에요. 진도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죠. 옛날에는 동네에 살다가 보름 정월 첫날부터 북치고 돌아다녔어요. 그냥 그때 잠깐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면서 보고 배우니까 외울 이유도 없지. 또 내년 봄에 가서 북 치면 배우고. 그런데 지금은 돈 주고 교육 받으러 와서 도제식으로 배워버려요. 재주가 좋은 사람은 집중해서 가르치면 일주일 만에 끝나요. 남들이 3,40년 배우는 걸. 이건 불행한 일 아닌가요? 형식적이고 ‘맛’이 없어. 세월은 가야 될 맛이 나거든. 보면 ‘이 사람은

양태옥 선생님한테 배웠구나.’ 딱 알아요. 왜냐? 같이 살면 전통적 학습이 엑기스가 되어서 다 티가 나요. 쉽게 말하면, “피는 못 속여.” 이런 말뜻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문화재라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재는 문화재라는 개념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또 개인에게 지정을 하다 보니 마을곳이 아니라 개인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잘못된 거지... 쌍채북춤의 탄생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북을 쳤던, 농악 속에서, 상장제례의식 속에서 내려온 것이지, 선생님에게 배운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춘다고 그 사람만이 가진 기술인 게 아니에요. 제가 양태옥 선생님에게 배웠지만 신체적 조건과 선호도가 다르기에 자기표현이 뚜렷하고 나름의 주관성을 갖게 되죠. 쌍채북춤은 다른 어떤 무형문화재보다도 그런 점이 강하다고 봐요.

**김** 내드름은 광주 최초의 풍물패라고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가 깊을 것 같아요. 현재도 꾸준히 정기공연을 하면서 봉사와 교육까지 길을 넓혀가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박** 30년 전, ‘광주민학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대학 교수부터 문화재위원들이 다 소속되어 있으니 소위 잘나가는 단체였죠. 그 때 당시 광주민학회에서 양태옥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 집으로 찾아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87년도에 양태옥 선생님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나를 민학회로 데리고 갔죠. 그러면서 민학회에 오신 교사 분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던 중 여러 복잡한 일들로 조직이 분리가 되고, 몇 명이서 그곳을 나와 새로 만든 단체가 ‘내드름’입니다. 선생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이 “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처럼’이라는 의미로 내드름이 탄생했어요. 1991년도 11월 1일, 우리 소리 찾는 모임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네요. 2000년도 즈음부터 거의 7,80회 공연을



했고, 지금은 정기공연을 약 10회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중 교류로 한국 대표로 한번, 한·일 교류로 한국 대표로 한번, 세계수영대회 개·폐막식 공연, 또 몽골 친선문화교류 봉사로도 갔고요. 전수교육은 저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10년간 평생교육을 하면서 약 700여 명이 전수교육을 수료했어요. 지금도 매월 1회 쌍채북춤 연수를 하고 있고요.

**김** 광주 지역적으로나, 특히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으로 유구한 역사와 가치를 이어오는 일을 해내고 계시네요. 더욱이 빠르게 사라지고 변하는 시대에서 옛 것을 지키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 아닐까요?

**박** 제가 하나 고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한눈 안 팔고 북춤 외길만 걸어왔다는 겁니다. 처음에 북을 들었는데 춤도 못 추고 몸도 어색하지, 거기다 왼손잡이였어요. 모두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로 누구한테 끼서 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기 수료생 중에 제가 제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김내식 이수자예요. 어떻게 이수자가 되고 내드름을 꾸릴 수 있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해왔다는 것, 잘하는 사람들은 다 손을 놓고 가버렸는데 저는 이걸 안 놓고 끝까지 해서 혼자 남았어요.

또, 진도에 가서 서너 번씩 동네를 살피면서 자료를 찾고, 공부하고, 그런 정리하는 작업을 2000년도

들어서면서 조금씩 해왔고요. 그래서 그런지 역사학과를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과 대화가 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론과 실기를 같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나 싶어요. 내 인생 늘그막에 좋았던 것은 30대에 시작했던 이것을 한 번도 놓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 교직 일을 병행하면서했고 지금 퇴직 후에도 우리 문화 지킴이로서 오늘날에도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공 자체가 역사라 의식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일이지 않을까요?


**김** 대표님은 문화재가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되기 위해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 사회적 노력은 나중이고, 가장 첫째는 정신 수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마음의 자세. 예를 들면, 문화재 종목을 계승·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매진을 해야 하는데, 문화재를 빌미로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발생해요. 그런 생각을 사부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그 밑의 제자들에게 대물림되어요. 문화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전승·보존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자기 생계유지를 하면서 돈 벌고 명예 살리고 권력 잡으려고 한다는 거야. 영원한 건 없는데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서 원래 종목에 초지일관으로 매진하고 활동하면 얼마나 아름다워.

**김** 마지막으로, ‘북’에 대표님의 오랜 세월을 맡기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표님의 몸과 마음에 어떤 것들을 담아내고 싶으신지요.

**박** 역시 똑같아요. 시작했을 때나 죽을 때나,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애써 뭘 만들어나가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해온 것들을 계속 해 나갈 거예요. 일상을 살다 보면 그 거리거리마다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공연이 될 수 있고,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연수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일상이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상이 똑같아 보더라도 그날 걸어가는 기운이나 행복의 지수가 달라요. 저는 한 번도 똑같은 날이 없었어요. 항상 새롭고 달라. 그 대신 뭘 하려고 과하게 오바하면은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순간 목표가 바뀌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데, 새로운 것은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찾아오더라고요.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정정할 점, 고칠 점, 장려해야 할 점들이 묵시적으로 기운이 와요. 일상이 똑같다고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꾸준히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뒤로 가지만 않으면 진취적인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전 분명 내드름이 발전할 거라고 봐요. 제자들도 20년 동안 나 안 떠나고 같이 부대끼고 있었던 건, 뭔가 나한테 쓸 만한 게 있었겠죠. 이 나이 먹고도 아직까진 일상이 만만치 않게 바쁘고, 즐거워서 행복해요.

웃음기 띤 얼굴로 인터뷰를 마치고, 주고받은 목소리를 돌아보았다. 곧은 목소리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전해지는 듯 했다. 한 남자가 수많은 관객 앞에서 흰색 저고리에 두건을 두르고 쌍채를 높이 들었다. 북 메고 恨품은 신명난 춤사위로 무대에서 춤을 선보인다. 아, 박병주 대표님의 북춤이구나. 한 나그네가 비틀비틀 혹은 뚜벅뚜벅 외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손과 발엔 굳은살이 박히고 옷감이 바랬으나, 흐트러짐 하나 없는 눈빛을 하고선 말이다. 

# 더 글로리가 좋은 드라마인 이유 그리고...

## 파트2 공개를 기다리며 파트1을 돌려본 드라마

3월 10일을 기다렸다. 기다리며 이미 몇번이고 다시 본 파트1 에피소드를 돌려보고 또 돌려봤다. 호평 가득한 가운데 마무리된 드라마 더 글로리 이야기다.

“하예슬, 니가 하라고 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사과할 거야. 너한테 진심으로 미안하게 든.”

가장 연약한 존재로 마음만 먹으면 치명적인 고통을 가할 수 있었던 가해자의 딸을 복수의 수단으로 삼지않고 무한히 사과하겠다는 모습, 더 글로리 속 문동은을 응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초록색 구두를 신고 다가오는 동은을 보고는 내려와 동은의 이야기를 듣는 예술의 모습. 이 지면을 통해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장면 인식에 관한 이야기다. 여전히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건지 어리둥절한 이가 있다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씀드린다. 보면 아는 당연한 이야기, 자연스러운 일을 특별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어리둥절한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다만, '보면'아는 이야기의 당연한 전제가 드라마를 보는 모든 이에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누구나 '당연히' 즐길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는 화면 해설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지원된다. 시각 장애인인 필자가 동은이 예술에게 사과하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는 건, 화면 해설이 제공 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휴대폰 소리와 같은 '들어'봐야 알 수 있는 정보를 '읽어'볼 수 있게 자막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서 볼 수 있는 '당연한' 모습이다.

넷플릭스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구독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당연한 모습'도 변하고 있다. 영화 관람료는 아깝게 느껴지지만, OTT 구독료는 자연스럽게 결제한다. 외국 콘텐츠에나 필요한 것으로 여겼던 자막이 한국어 콘텐츠에도 제공된다. 시각 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 화면 해설과 한국어 자막 제공이 내게도 꽤 유용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는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신뢰가 시-청각 장애인 이용자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화제가 된 드라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됐다.

### 2021년, <오징어 게임>까지 계속된 당연하지 않은 소송

2016년, 넷플릭스 한국 서비스가 시작되던 해 CJ CGV를 상대로 시각 장애인 2인과 청각 장애인 2인이 '영화 좀 보게 해달라'는 요지의 소송을 시작했다. 사건 번호 2016가합508596 사건은 2017년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일단락되었다.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1 화면해설방송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으로서, 등장인물의 행동, 의상, 몸짓, 배경 및 기타 상황변화 요소들을 음성으로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방송 프로그램 이해를 도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 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또는 자막 파일을 제공 받은 영화에 관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화면 해설을, 원고 3, 원고 4에게 자막을 각 제공하고, 나. 원고 3에게 FM 보청기기를 각 제공하라.
2. 피고들은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 가. 원고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하여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그 상영관 및 상영시간 그 밖에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의 내용을 각 제공하고, 나. 영화상영관에서는 원고 1, 원고 2에게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를, 원고 3, 원고 4에게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를 각 제공하라.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 화면 해설과 자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신기 등을 제공하라는 판결이다. CJ CGV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021년 2심에서도 동일하게 시각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이 <오징어 게임>을 즐길 때까지 CJ CGV는 소송에 열심이었던 셈이다.

### 2023년, with 코로나와 함께 우려되는 문화/예술에서의 접근권

확진자 3,000만 명이 넘는 지금,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고 더 완화할 계획이다. 현장 공연과 전시 등 위축되었던 문화/예술 활동이 조금씩 활발해지리라 예상되는 가운데 그만큼 장애인 등 문화/예술 접근이 제한된 이들의 차별도 늘어나지 않을지 선불리 우려해 본다. 기우이기 바라면서 말이다.



## 9 “앞줄 가운데는 안 돼요” 공연석 차별

“앞줄 가운데는 안 돼요” 휠체어 장애인 공연석 차별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관객이 연극을 보러 왔다면 OTT는 제공할 수 없는 현장의 문화/예술 활동이 고민할 문제가 무엇인지 막연하다면 위 질문에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다행히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이 관람할 수 있는 뮤지컬은 이미 여러 차례 공연된 바 있다.

기술?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으로 인식된 일까지 AI가 대신하고 있는 요즘 아닌가. ‘도구’가 아니라 ‘활용’을 위한 고민과 상상력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장의 문화/예술 공연이 모두에게 ‘좋은 콘텐츠’가 되기 바라며**

OTT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공연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시기 영화관이 그랬던 것처럼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극장과 공연장 대신 언제 어디서나 온전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저렴한 OTT 감상으로 여가 생활을 택할 수는 있다. 다른 극단이나 공연팀과의 경쟁이 아니라 규모가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의 경쟁, 그게 지

금 현장의 문화/예술 창작자가 마주한 현실 아닐까?

드라마 <더 글로리>가 좋은 드라마인 이유는 스토리 때문만은 아니다. 그 스토리를 온전히 이해하며 즐길 수 있는 화면 해설과 청각 장애인용 자막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문화/예술 공연이 ‘안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걸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찾아보기

- <더 글로리> / Netflix
-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 판결문, 2016가합508596, CaseNote
-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텡그리와 부르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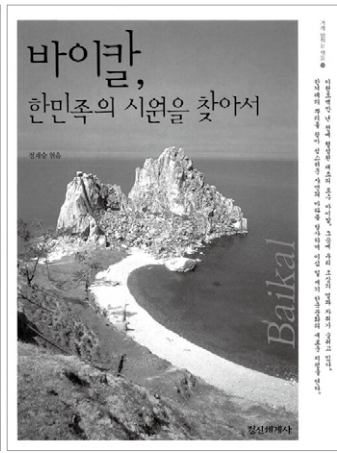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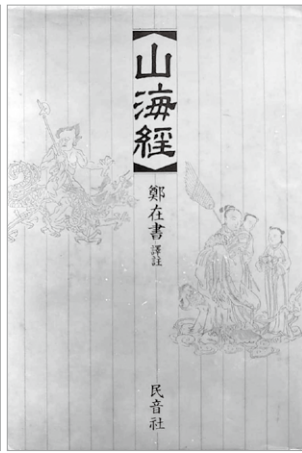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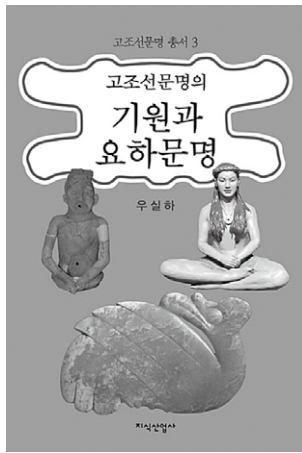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바대로 서기전 2,333년에 고대 조선이 세워졌다면 우리나라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 맞다. 4천 년도 훨씬 더 되는 오랜 기간을 이어온 민족이라면 그 역사에 못지않게 유구한 전통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유구한 전통을 지니게 된 기초, 달리 말하여 그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을 지탱하게 한 밑뿌리 사상은 무엇이였을까?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정신의 양극을 이야기해 볼까 한다.

‘텡그리’는 북방민족들이 하늘을 지칭하는 말이다. 터키에서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를 거쳐 몽골과 만

주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까지 두루 쓰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달리 표현되지만, 그 뜻은 모두 하늘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하늘의 말’을 듣고 인간에게 ‘하늘의 뜻’을 전하는 사람도 텡그리라 불렀던 모양이다. 칭기즈 칸이 유라시아를 정복할 때 칭기즈 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2인자는 장군이 아니라 텡그리였다고 한다. 텡그리 그러니까 천신(天神)이 전쟁을 하라하면 했고, 싸워서 안 된다고 하면 싸우지 않았다. 칭기즈 칸이 활동하던 13세기에도 텡그리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이다.

동양은 아주 일찍부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관념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다. 중국인들이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지금도 중앙이 아닌 곳을 지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우실하는 『고조선문명의 기원과 요하문명』에서, 홍산문화 사람들은 하늘은 원, 땅은 네모, 사람은 세모로 나타냈다고 하였다. 홍산문화 우하량 유물에서 그런 형상이 나타난다니, 이미 서기전 3,500년 무렵에 일찍이 그런 관념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하량 유적지에서는 하늘에 제사지내는 원형 제사 터와 땅에 제사지내는 방형 제사 터가 발견되었다. 그러니 중국인들의 천원지방





이라고 하는 관념도 사실은 홍산문화 지역인 내몽고나 요서 지역에서 먼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천지인(天地人)이라는 삼재(三才) 사상도 홍산문화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늘이 ‘둥글다’고 했다면, ‘하늘은 퐁그레’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보니 텡그리와 퐁그레는 음소가 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텡그리라는 말 자체가 ‘하늘이 둥그랗다’는 말에서 나왔을 직하다. 그런데 텡그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당골레’로 정착되었을 것이다. 텡그리가 하늘이지만 하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당골레가 그런 역할을 했다. 사실은 조선을 세운 ‘단군’도 텡그리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흉노족은 왕을 텡리고도(撐犁孤塗, tengri kut)라고 불렀는데, 이것 역시 텡그리라는 하늘을 뜻하는 말이다.

흉노의 우두머리를 중국에서는 선우(單于)라고 불렀는데, 이 선우도 사실은 ‘단간’(單干)이라 불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단간 또는 단간은 단군일 것이고, 간 간 군은 같은 뜻으로 신라에서도 마립간을 통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당골레를 당골이라고도 하는데, 당골 역시 단군과 음운상 매우

비슷하다. 아마 제정일치 시대의 흔적일 것이다.

최남선은 『불함문화론』에서 텡그리를 ‘불함’과 함께 매우 자세히 다루고 있다. 불함(不咸)이란 중국 『산해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용어인데, 백두산을 일컫는 말이다. 불함산은 부르한산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부르한’이란 ‘밝은’ 또는 ‘붉은’과 같은 말로 태양이나 빛을 숭상하는 신앙에서 나온 말이다. 몽고에는 부르한산 뿐만 아니라 부르한 바위 등 부르한이라고 부르는 명칭이 아주 많다. 그러니까 백두산은 원래 부르한산이라고 불렀는데, 중국인들은 이 부르한산을 불함산이란 한자말로 적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최남선은 부르한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보고, ‘밝음을 숭상하는 신앙’을 ‘불함문화’ 또는 ‘불함사상’으로 정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남선은 ‘텡그리’와 ‘부르한’ 다시 말해 ‘하늘’과 ‘밝음’이 우리에게 양금으로 남아 있는 우리의 기층신앙 또는 기층문화라고 보고 있다는 말이다.

내가 보기에는, 텡그리는 하늘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늘은 둥글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 같고, 밝 또는 부



르한은 ‘햇빛이 밝거나 붉은’데서 나온 것 같다. 그러다가 텅그리와 부르한에 여러 신성성이 가미되고 의미가 습합되면서 나중에는 서로 비슷한 뜻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발생의 시발은 하늘과 해라는 두 가지 근원을 가지고 있어 그 출발은 달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은 1927년에 일본글로 발표되었고 우리글로 번역된 것은 2008년이니, 일본글로 발표된 지 무려 80년 만에 번역된 셈이다. 중요한 글이 오랫동안 번역되지 못한 것은 최남선이 친일을 했다는 죄과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최남선의 모든 저작물이 ‘최남선 한국학 총서’로 발간되어 모두 구해볼 수 있다. 『불함문화론』이 발표되던 해에 『살만교 차기(薩滿教 筭記)』도 발표되었는데, 이는 샤먼에 대한 연구서였다. 최남선은 아주 이른 시기에 샤먼 연구도 함께 시작한 셈이다.

‘불함문화론’은 스케일이 매우 광대하다. 인류의 3대 문명권을 ① 인도 유럽 계통의 문화 ② 중국계통의 문화 그리고 ③ 불함문화로 나누고 있다. 그는

불함문화의 전파를 아래와 같이 상정하고 있다.

흑해→가스피해→파미르고원→천산산맥→알타이산맥→사얀산맥→야블로노이산맥→흥안령산맥→태항산맥이동(以東)→조선→일본→유구

여기에는 캄차카반도와 베링해 및 아메리카 대륙은 나오지 않으나, 최남선은 중국과 인도 문화의 본질을 남방계 문화로 보고 불함문화는 북방계 문화로 상정한 것 같다.

최근 신용하 교수는 『고조선문명의 사회사』에서 고조선문명을 인류의 세 번째 고대문명으로 상정하였는데, 최근에 많이 알려진 흥산문화를 유력한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다. 신용하는 한반도(고대에는 반도가 아니라 중국과 연결된 땅)의 문명이 만주를 거쳐 북유럽으로까지 퍼져나갔다고 주장하여 최남선의 주장과는 많이 다르다. 최남선이 ‘불함문화’의 시작을 흑해 지역으로 보았다면, 신용하는 한강 대동강 유역에서 시작된 광명 사상이 유럽으로까지 전파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조선문명’이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일부 학자들은 매우 황당한 주장이라고 무시하는 모양이지만, 나는 ‘신화’라는 관점에서 참고할 내용이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 ♪



김상운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 도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지난 50여 년간 한국은 산업화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생활편익이 크게 개선되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차량 위주의 도시계획에 근거한 도시개발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 상실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도시개발의 개념으로 스마트시티, 뉴어바니즘, 어반빌리지, 콤팩트시티 등의 다양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도입하면서 이미 쇠퇴하여 제 기능을 못하는 도시와 쇠퇴일로에 있는 도시의 재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이유는 도시와 도시 환경에 대한 재생이 이미 도시화되어 버린 우리 삶의 질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은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수준의 개선과 도시경제 회복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측면에서 영국의 토니 블래어 정부와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에서는 도시부흥(Urban renaissance)의 용어로 개념화한 적 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정비를 통해 환경, 경제, 사회적인 측면을 부흥시킨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이 과거의 기능 중심에서 벗어



북촌 한옥마을 풍경. © 위키백과

나 미학적인 환경을 중시하고 페스티벌, 스포츠, 문화행사, 역사문화환경보전 등 문화전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문화도시전략으로, 도시를 마케팅하고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운 것을 찾는 도시재생보다는 기존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잠재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의 경쟁력을 찾아야 할 때이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국내의 사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서울 북촌 한옥 마을은 1930년대 대규모로 조성되었으나 다세대주

택 건축 유행으로 크게 훼손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었고 한옥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한옥의 가치는 물론 복촌의 품격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면서 정부와 주민들의 상호 협력 하에 대대적인 복촌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한옥 등록제와 한옥 개보수비용의 보조·용자를 통해 보존과 재생을 유도하였고 한옥의 멸실과 난개발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조치를 시행하였다.

주차장 부족, 골목길 환경악화, 화재위험, 생활편익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가로환경 정비사업, 바닥포장, 전선지중화 등을 통해 쾌적한 공간을 창출한 결과 주민 및 관광객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연계하여 가로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후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을 가꾸고 운영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문화제업과 학습관광코스도 유명해져 많은 관광객

들이 유입되었다.

정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고유하고 특성 있는 문화도시를 육성하려는 정책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에 발맞춰 문화관광부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전통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계획은 한국문화에 기여하는 전주 전통문화도시의 내재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가장 한국적인 것에서 출발한 도시재생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거점에 전주명품관,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 등의 공공문화시설과 광장, 주차장 등의 정비를 통해 도시한옥, 경기전, 전동성당, 풍남문, 오목대, 전주향교 등의 문화유적과 새로운 탐방시설들간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서울 인사동은 예로부터 상업의 중심지로 궁중



전주 한옥마을 풍경. © VISIT JEONJU



전주 한옥마을 야경. © 한국관광공사

에 납품하는 물건을 취급하는 상점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3·1운동의 대표적인 본거지이고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1960년대에는 골동품점, 표구점, 고서점 등이 형성되었고 1970년대에는 지업사, 민속공예점, 전통찻집이 들어서 명실공히 전통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인사동 전통문화거리는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비를 착수하여 많은 시민들을 인사동으로 모이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내적으로는 외국의 잡상인들과 노점상들의 불법 상행위가 성행하면서 폐업하는 상점들이 점차 늘어나 노점상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규제하였다. 더불어 인사동 역사탐방로 조성사업을 통해 가로의 성격을 전통의 거리로 규정짓고 한국의 고유재료와 형태, 상징을 세련된 감각으로 디자인하여 한국 전통의 멋을 살렸다.

차 없는 거리인 인사동은 그 이용주체가 사람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 만남, 대화, 구경 등 사람들의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고 대중행사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짜임새 있게 진행된다.

그러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요소는 무엇일까? 위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도시재생의 이슈들은 대부분 도시 수준의 범위에서 논의되었으나 위의 성공적인 사례들은 도시재생



전통과 도시의 조화(인사동). © 서울특별시

을 통해 도시를 부흥시키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공간을 재창조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가로와 건축물의 재활용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는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역사적인 건축물과 가로경관의 기본적인 정비만으로도 더 명확한 아이덴티티와 장소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점이다. 지역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유의 장소성은 가장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고 커뮤니티 행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도시의 재생을 위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자원이 담고 있는 가치를 살려내고 가치와 의미를 잘 드러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있어 중요한 문화재나 역사 이전 시대의 상징물로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즉 문화유산의 보존을 뛰어넘어 우리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점으로 넓게 변해야 할 것이다. ♪



신영주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광주실감콘텐츠큐브 100일, 활성화 방안

## 국내 최대 실감콘텐츠 제작설비 갖춰

광주실감콘텐츠큐브가 약 3년간의 공사 끝에 2022년 11월 25일에 개관했다. 남구 송암산단 일대 광주 CGI센터 뒤편에 자리 잡았다. 총 사업비 1,048억원 중 약 860억원이 투입됐다. 부지면적 17,912m<sup>2</sup>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건축됐다. 공간은 실감콘텐츠 제작을 위한 '실감촬영스튜디오', 실감콘텐츠 창제작 기업 입주공간인 '아하랩(Aha Lab)', 실감콘텐츠 창작, 전시, 체험, 교육공간인 '와우랩(Wow Lab)'으로 구성됐다. 특히 '와우랩(Wow Lab)'은 실감혼합현실 스튜디오인 MR스튜디오와 다목적 실감융복합 스튜디오인 MX스튜디오,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형 실감촬영스튜디오인 VX스튜디오를 갖췄다. 실감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최첨단 시설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는 기존 광주CGI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됐다. 광주CGI센터는 2012년에 개관했지만, 주로 컴퓨터로 영상제작물의 이미지 작업을 하는 후반제작(Post-Production) 설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과정에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나 특수효과가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기능을 했다. 주로 이미 제작한 콘텐츠를 이곳에 가져와 효과를 입히거나 그래픽을 보완해 편집을 완성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광주에서 콘텐츠를 기획(Pre-Production)하고, 제작(Main-Production)하는 과정까지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작시설이 필요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구축한 시설이 광주실감콘텐츠큐브이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는 콘텐츠의 제작과 함께 유통과 교육 등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실감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구나 콘텐츠 제작자들이 광주에 와 숙식하면서 제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레지던스 시설까지 완비했다. 일반인들이 AR, VR, XR 기법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체험 공간도 확보했다. 이로써 남구 송암산단 일대가 실감콘텐츠 산업과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되었다.

## 광주를 실감콘텐츠 전진기지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서비스, 그리고 영화와 게임, 애니메이션 등이 실감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도 AR, VR, XR 기법에 기초한 실감콘텐츠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첨단 실감콘텐츠의 기획에서 유통까지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광주실감콘텐츠큐브가 갖고 있

는 잠재력과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 도시 사업, 그리고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사업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과 광주 실감콘텐츠큐브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광주는 미래 콘텐츠를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실감콘텐츠큐브 기반을 활용해 문화산업을 혁신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중장기 전략으로 2030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200개 육성, 실감콘텐츠 산업 일자리 10,000명 창출, 실감콘텐츠 산업규모 1조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보다 체계적인 광주실감콘텐츠큐브를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실감콘텐츠큐브의 홍보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실감콘텐츠 제작을 위한 최첨단의 시설과 설비를 갖췄지만, 주요 고객인 제작사 등이 이를 알지 못하면 활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광주실감콘텐츠큐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분의 제작사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광주에 와서 제작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저렴한 시설과 장비 이용료, 장기 이용자에 대한 숙박 문제 해결, 이전 활용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의 체험 공간 및 견학 프로그램 등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광주의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전시공연 콘텐츠와 연계 및 지원, 5대 전략콘텐츠의 실감콘텐츠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연계한 실감콘텐츠의 제작과 전시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광주의 전략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등의 산업과 연계한 체험



및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실감콘텐츠 관련 기업유치와 투자 유치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시행해 왔던 투자진흥지구 입주한 기업에 대한 세제 등의 혜택에서 벗어나 광주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공급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CT연구원 유치 등을 통해 최첨단 실감콘텐츠 기술개발과 실증기능 등을 활성화해 신규 투자를 유발해야 한다.

실감콘텐츠라는 다소 새롭고 생소한 첨단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래 콘텐츠의 진화 방향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 길에서 미래를 이끌 최고의 시설과 기반을 갖췄다는 것만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이 앞서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광주가 콘텐츠 분야에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지는 광주실감콘텐츠큐브 활성화와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주정민 전남대 정책대학원 원장

# 광주목 관아 희경루(喜慶樓)의 연혁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란 의미를 가진 희경루는 광주목 내에 있었던 관아의 누각이다. 희경루의 연혁과 건축형태 등에 관해서는 기문, 시문과 그림, 지리지 등이 있고 고지도상의 표기를 통해 위치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신숙주의 기문(1451년)에 의하면 1450년 태수 안철석이 고을 안에 관유(觀遊)할만한 장소가 없는 것을 아쉽게 여겨 1년여 뒤 새로이 누(樓)를 짓고자 고을의 어른 부로(父老)들과 의논하였더니 예전에 무너진 공북루(拱北樓)의 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여 동향으로 누각을 지었다 한다. 이로부터 20여년 전인 1430년(세종 12년)에 읍민 노홍준이 당시 목사 신보안을 구타한 사건으로 인해 광주목에서 강등되어 무진군이 되었던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누각이 지어진 6월에 필문 이선제 등이 강등당한 지 20년이 되었으므로 광주목으로 복귀해 달라고 상소를 올려 당시 임금인 문종의 복호(復號) 허락을 받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니 이에 이 누각의 이름을 희경루라 짓게 되었다. 아울러 이 누각의 동쪽 편엔 대로가 지나며 그 길 건너에는 활 쏘는 장소를 두어 관덕(觀德)을 하게 했고 서쪽엔 대나무 숲, 북쪽엔 연꽃이 가득 심어진 큰 연못을 두는 등 누각과 주변의 풍광이 잘 갖추어졌음을 전하고 있다.<sup>1</sup>

## 지방 관아 누각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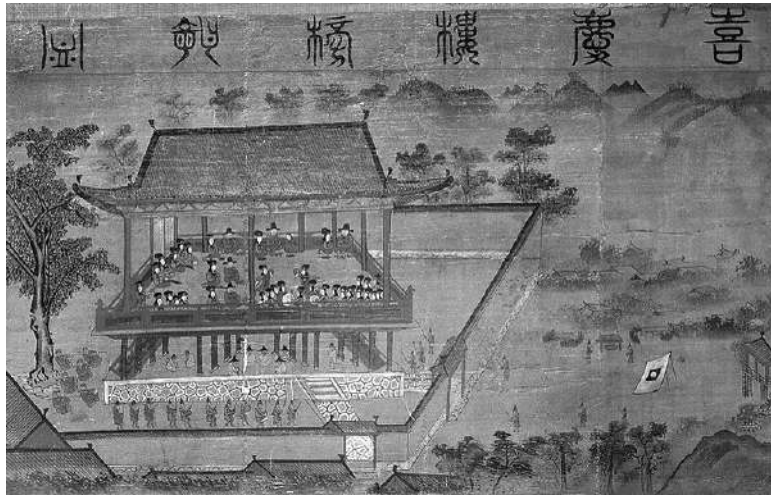
이처럼 희경루와 같이 관아에 소속된 누각들은 중앙의 관리들이 지방을 순력(巡歷)할 때, 전국 순유의 거점으로 이용되어 그들에 대한 접객 및 휴식과 연회 등의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조선왕조가 시작되면서 중앙 왕권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반세기 가까이 전국 군현에 획일적으로 객사나 향교가 건립되었다. 객사의 건립과 함께 지방 각 군현에는 도시 중심부에 관아 누각이 품격있고 웅장하게 조성되어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건축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누각들은 마치 수도의 궁궐에 자리한 경회루에 버금갈 정도로 규모가 크고 중층의 구조로 넓은 마루와 계자난간을 사용하여 개방감과 확장감을 주고 있다. 특히, 16세기 이후 각 지방의 산야에 조성된 조그만 정자에 비해 월등한 규모와 격식을 갖추었고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하여 도시 경관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2</sup> 현존하는 대표적인 관아 누각으로는 광한루와 영남루, 축석루, 죽서루 등이 있는데, 이들의 건축형태와 경관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지방 고유의 건축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지방 수

1 신숙주, <喜慶樓記> 『보한재집(保閑齋集)』, 권 14

2 김동욱, 朝鮮初期 地方都市內 樓亭의 形成過程과 建築特性, 경기대학교 논문집, Vol.37, 1995, 542쪽.





희경루 방회도(1567년)

령이 누각 건립을 계획하였을 때, 다른 지방의 조성 사례를 참조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sup>3</sup>, 관리들의 근무지 이동이나 지방과 중앙, 지방과 지방의 교류에 의한 건축적 정보 교환이 활발했던 까닭으로 이해된다.

#### 희경루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喜慶樓榜會圖』

여러 고문헌 자료에 의하면 희경루 건립 경위와 연대를 비롯하여 소실과 중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장 실증적인 자료로서는 1567년(명종 22) 당시 광주목사 최응룡, 전라도관찰사 강섬 등 5명이 같은 해 과거에 합격한 지 2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희경루에서 가졌던 계회(契會)<sup>4</sup>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희경루방회도」가 있다.<sup>5</sup> 이는 16세기에 그려진 계회도(契會圖)로 광주목 관아에 부속된 희경루의 모습과 방회 장면, 주변 경관 등이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묘사된 그림이다. 그림은 위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정면부감투시(正面俯瞰透視)와 대각선에서 바라보는 평행사선투시가 이중투시로 적용되어 두

가지 시점이 각기 독립적으로 한 화면에 표현되어 있다. 그림에 의하면 희경루는 높게 쌓은 기단 위에 누하주를 세우고 마루를 구성한 팔작지붕의 누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둥열 보다 약간 더 돌출된 위치에 난간을 시설한 것으로 보아 계자난간임을 알 수 있으며, 기둥의 석간주와 기둥 상부의 공포 부분에서 뇌록(靑綠)이 채색된 점으로 심언광의 「희경루기」에 묘사된 단청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원래의 위치로 추정되는 충장로에 중건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위치를 고민하고 적절한 곳으로 정하여 2023년에 새롭게 중건하였으니 당호의 뜻처럼 누대에 걸쳐 기쁘고 경사스런 일들이 광주 공동체에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또한 바라보는 누각으로만 두지 말고 시민들과 공공에서 즐겨 사용하여 뜻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3 이강근,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조선전기까지의 건축, 한국불교미술학회, Vol.2 No.1, 1989, 69~70쪽.

4 과거시험에 합격한 동기생들의 모임

5 동국대학교 박물관의 소장품

# 43주년을 맞이하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

우리가족 최애 영화 중 하나는 <코코(Coco)>라는 멕시코 망자의 날(Día de Muertos)<sup>1</sup>을 모티브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주인공 미구엘이 전설적인 가수의 기타를 만지는 순간 죽은 자들을 보이고 망자의 땅으로 초대돼 가족과 전통의 중요성과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뜻밖이고 멕시코의 이색적인 문화까지 엿볼 수 있는 가족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면 망자의 땅에서도 영원히 사라진다.'였습니다. 기억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라지지 않도록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제43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밝은 5·18기념행사를 만들고 싶지만 아직은 모두가 납득할 만큼의 진상규명도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도 더구나 지난 2월 19일 특전사동지회의 망

월동 기습참배와 '질서유지' 발언, 5·18민주화운동 교과서 삭제파동 등 5·18은 풀어야 할 해묵은 숙제가 많습니다. 풀리는 숙제만큼 우리의 오월은 더 밝아지고 애도의 장에서 축제의 장으로 바뀌어 갈 것이며,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모두의 힘을 모으는 장으로써 43주년 5·18기념행사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아직도'보다 '아직은'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아쉬움이 큼니다.

제43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의 기초와 방향을 '5·18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에 기여', '정전 70주년, 5·18의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으로', '오월공동체정신으로 위기 극복', '5·18 미래세대에 대한 믿음과 응원'으로 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와 방향을 토대로 43주년 오월행사의 슬로건과 포스터 등을 전국 공모로 진행하여 5·18을 알리고 5·18이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장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첫 일성으로 11개 시·도행사위원회 등이 함께 국립5·18민주묘지와 민족민주열사묘역 참배와 출범선언을 하는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 출범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43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행사이다 보니 큰 행사의 즐기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5월 13일

1 죽은 자의 날(Día de Muertos)은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멕시코의 최대 명절로 국경일로 지정되어 매년 10월 31에서 11월 2일까지 각종 축제와 행사가 치러진다. 죽은 자의 날을 맞이해 각 가정에서는 제단을 꾸미고 고인들을 추모한다. 2008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됐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 망월묘역 참배

부터 27일까지 5·18기념행사 주간으로 선포하고 5월 13일 전국의 시민사회 등 각 부문의 단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부문행사와 5월 17일 '전야제'를 중심으로 오월공동체를 금남로에서 재현하는 시민들이 만드는 체험과 공연 등을 열리는 '시민난장'과 80년 5월 시민들의 가두행진을 재현하는 '민주평화 대행진'이 전국에서 모인 풍물단을 앞세우고 금남로를 걸을 것입니다.

오월행사는 금남로와 옛 도청, 그리고 광주에서만 진행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전국의 15개 시도별 행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별 기념식과 기념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며,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43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오월에서 통일로!'. 일상으로부터의 작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을 오월광주에서부터 시작하고자 일상 속의 전쟁과 폭력적인 장난감을 시

민들로부터 모아 평화의 작품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세대인 청년과 청소년들의 참여로 그들의 시선으로 5·18을 새롭게 해석하고 도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록 성공과 실패의 과정 모두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로 빼앗겼던 일상을 되찾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43주년 5·18이 더 큰 힘과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힘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오월 광주에서 뵙겠습니다! ♪



박상은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 동시대 화두, 여성, 광주정신, 그리고 연대

-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미리보기

제14회 광주비엔날레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개최  
주제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도덕경에서 차용  
이질성과 모순 수용하는 물의 속성...공존, 연대, 돌봄 모색

1995년 창설되어 올해로 제14회를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동시대 미술의 동향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측정하는 바로미터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모더니즘 시기 흐름을 주도했던 사조의 쇠락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술관이 변화와 위기를 겪는 동안 비엔날레라는 미술 제도가 1990년대 이후 담론을 생산 및 확대하는 통로로 작동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던지는 시대적 화두와 담론은 무엇일까.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그동안 타자였던 여성, 특히 소수민족 여성들의 삶과 서사를 중심으로 가져오고, '광주정신'을 근원 삼아 광주라는 인식론적 틀로 이분법적 구조 탈피하면서 공동체의 '연대'를 발화하고 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도덕경 '유약어수'에서 차용

"세상에서는 물이 가장 유약하지만, 공력이 아무리 굳세고 강한 것이라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

『도덕경』 78장의 '유약어수(柔弱於水)'이다. 제14

회 광주비엔날레 주제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는 도가의 근본 사상을 담은 『도덕경』에서 차용했는데, 이질성과 모순을 수용하는 물의 속성에 주목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에 깊이 침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현실에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예술의 가치를 탐구하고자 한다. 전환과 회복의 가능성을 가진 물을 하나의 은유이자 원동력, 혹은 방법론으로 삼고, 이를 통해 우리가 사는 지구를 저항과 공존, 연대와 돌봄의 장소로 상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스며드는 부드러움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물의 힘을 새로운 표본으로 삼아 분열과 차이를 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그리고 물을 통해 모든 생명체가 성장해나가듯이, 물은 넉넉한 '무등정신'으로 모든 생명체를 품어 안아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연대를 강화하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물이 생명의 원천이듯, 예술 또한 사회와 인간을 회복시키는 열린 사유와 지각을 활성화하는 '윤활유'라 할 수 있다.

동시대 뜨거운 화두 '여성'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존재하지 않았는가?」

미국의 미술사학자 린다 노클린(Linda Nochlin)이

1971년 아트뉴스에 게재된 글이다. 이 글은 페미니즘 미술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촉매제가 되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담론이 여느 때보다 활발한 시점이다.

그 예로 2022년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 참여작가의 90%가 여성 작가였으며, 이번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절반가량이 여성 작가이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는 수백 년 간 이어져 온 견고한 구조와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고 타자를 중심화하는 차별화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예술 행동을 지속해왔는데, 이번 광주비엔날레에서는 특히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 있는 소수 민족의 여성 작가들을 집중 조명한다. 다양한 세대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은 호주 토착민 지역 사회의 원로 작가인 에밀리 카메 쿵와레예(Emily Kame Kngwarreye), 베티 머플러(Betty Muffler)와 알마티와 케이프타운에서 활동하는 신진 작가 등을 아우른다.

호주 중앙 사막 지역 이완차 아트센터 소속의 여성 원로이자 아티스트인 베티 머플러(Betty Muffler)의 작업은 회화, 소묘, 판화와 호주 토종 풀인 찬피 직조를 아우른다. 머플러의 작품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기인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을 돌볼 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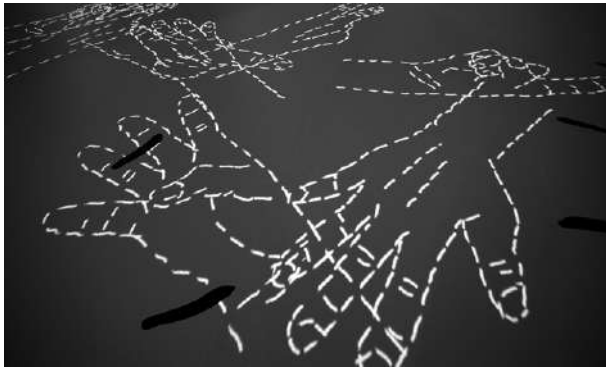
주디 왓슨(Judy Watson)은 원주민 사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입증하는 사료를 작업의 일부로 사용하며 본인 가족과 친지들이 감내해야 했던 억압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다루는 작품 세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이번에 선보이는 작업은 퀸즐랜드에 위치한 여러 개울과 강에서 수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만든 회화 연작이다. <죽은 나무가 있는 버룸 강> 등의 작품에서 알 수 있듯, 각 작품 재료를 찾은 곳을 바탕으로 지어진 제목은 작가가 속한 원주민 사회에서 특정한 장소를 기억하는 방식을 환기시키며 식민 지배로 인해 재구성된 자연의 기억을 담아낸 일종의 지도로서 작용한다.



작업 중인 리우 지엔화

일본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에서 태어난 마유키키(Mayunkiki)의 사진 작업은 아이누 예술가이자 음악가인 자신의 정체성에서 출발한다. 아이누는 홋카이도, 혼슈의 도호쿠 북부 등의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들로, 이들 대부분은 일본 근대화 이후 일본 민족으로 편입되었으며 국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배척과 차별을 당해왔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역사의 연장선에서 마유키키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 아이누를 둘러싼 일본의 역사, 기억, 고정 관념을 은유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억압받거나 소외되어 온 다른 소수 집단으로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킨다.

그리스와 중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명에서 찾을 수 있는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한 김 림(Kim Lim)의 조각과 드로잉은 세계화 담론에 앞섰던 작가의 탈국가적 사고방식을 보여주며, 카자흐스탄 젊은 여성 예



크리스틴 선 김 「모든 삶의 기표」



제임스 T. 흥 「아니마에 대해」

술가 바킷 부비카노바(Bakhyt Bubikanova)는 <오리엔탈 세밀화 따라 그리기> 회화 연작을 선보이는데 화려하고 장식적인 오리엔탈 세밀화에서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전통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한다.

이외에 불레베즈웨 시와니(Buhlebezwe Siwani)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맥락 안에서 흑인 여성들이 겪는 경험을 바탕으로 식민화의 끊임없는 영향과 토착민 지식의 억압에 대해 이야기한다.

### 광주에서 확장된 '행정적 비전'

오늘날 비엔날레가 중요한 이유는 전 지구화 시대 기술의 발달로 소통 속도가 빨라지면서 각 도시마다 생산되는 화두들이 무역로처럼 급속히 전파되는 파급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비엔날레는 여타 비엔날레와 달리 시대정신과 마주하는 창설 배경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광주비엔날레는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문화예술로 승화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은 광주비엔날레는 매 대회마다 광주정신을 시각화하고 있다.

특히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도시 광주를 다원성을 내포하는 '광주 정신'의 기원이자 근원으로 삼는다. 광주를 하나의 패러다임, 인식론의 틀로 본다는 것은 세계를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시공간에 걸쳐 분산된 교차와 연계의 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하고 기록한 강연균의 신작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화된 전후 시기 군부 독재와 소비주의를 비판적으로 담아낸 오윤의 작업과 공명하며, 말레이시아 사바 지역의 콜렉티브 팡록 술랍(Pangrok Sulap)은 5·18민주화운동의 지속되는 유산을 목판화라는 매체를 통해 탐구하면서 지역 사회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그들의 작업 방식을 광주의 맥락으로 옮겨 온다.

1970년대 도불하여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김순기 작가는 여러 차례에 걸친 답사를 통해 전남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한국 여성 작가들의 시를 낭독하는 모습을 다채널 비디오 신작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예, 수묵화, 판소리, 칠기를 비롯해 공예적 전통에 바탕을 둔 '예향'이라는 광주의 역사적 정체성에도 주목한다. 광주의 예술적, 문화적 뿌리에서 영감을 얻어 일견 동떨어져 있거나 상이해 보이는 것 가운데에서 초문화적 유사성을 찾아보면서 우리라는 틀을 넘는 연결적이고 행성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그 예로 알리자 니센바움(Aliza Nisenbaum)의 신규 커미션 작품은 광주의 놀이패 '신명'과 공동으로 작업한 회화로 구성된다.



모리유코 「입력출력」

### 연대와 관계의 미학

1990년대 이후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는 관계, 만남, 상생, 협력, 상호작용, 교환, 주체성 등의 예술적 실천들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프랑스 비평가이자 기획자인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는 ‘관계예술’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소비 중심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갈수록 인간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언어와 양식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또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 중심의 비엔날레이자, 공동체와 연대하는 예술적 실천의 장으로 펼쳐진다.

엄정순 작가는 인도네시아, 일본을 거쳐 한반도에 처음으로 들어온 코끼리의 ‘수난 여정’을 따라가며 그 경로 선상에 있는 도시의 시각장애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신작 <방 안의 코끼리 2023>은 관객들이 조형물을 만져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형 작업으로, 각 구조물에 입혀지는 색상 등은 여러 분야 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해 새롭게 감각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시각화한 것이다. 조형물의 형상은 작가가 오랫동안 진행해 온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협업한 작업을 토대로 한다. 작가는 시각장애 학생들과 태국 치앙마이의 코끼리보호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이 코끼리를 대면하게 한 뒤 청각과 촉각, 후각으로 느낀 코끼리를 함께 작

품으로 만들어 관객으로 하여금 ‘본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1970년대 한국의 전위적인 미술을 이끌었던 김구림, 이진용, 이승택의 작품 세계 또한 관객 참여형 작업을 통해 재조명한다.

김구림은 1969년 실험그룹 ‘제4그룹’을 결성하고 <바디페인팅>(1969), <현상에서 혼적으로>(1970) 등의 퍼포먼스를 선보인 바 있으며, 이진용 또한 행위 예술의 1세대로 신체 행위로 그림을 그린 <장소의 논리>(1975) 등의 작품을 시도하였다. 1960년대부터 한국의 민속을 탐구하면서 기존 조각 개념에서 벗어나는 작업 세계를 구축해왔던 이승택 또한 관객 참여를 유도하였던 초기작 <무제(이것으로 무엇이든 만들어도 좋습니다)>(1969~1970)를 출품할 예정이다.

첨예한 동시대 미술 현장인 비엔날레의 성공 척도는 과연 얼마나 지금 여기의 시대상을 시각적으로 잘 구현하느냐이다. 팬데믹, 고물가, 전쟁, 기후변화 등 그 어느 때보다 지구촌 공동체는 험거운 시절을 나고 있다.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 광주비엔날레 또한 어김없이 예술의 대안적 가치를 탐색하고 인류 공동체의 지혜와 집단지성의 힘을 응집하는 다층적 공론장을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 게’ 펼쳐내 보인다. 광주비엔날레는 시대적 아픔을 예술로 치유하고 승화하면서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 간의 긴 노정을 이어갈 것이다. ♪



조사라 (재)광주비엔날레 홍보마케팅부

# 길을 잃어버린 사랑을 염려하는 정한(情恨)의 처방

- 체념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랑의 노래 두 곡

과거에 매스컴에 오르는 사건사고라 하면 절도, 강도, 폭행, 교통사고, 물난리 등등이었는데 언제부터가 데이트폭력이라는 신종 사건이 추가되더니 이후 다양한 형태의 연애, 결혼, 가정에서의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 보도되고 있다. 과거보다 훨씬 더 풍족해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발전되고 향상된 것 같은데 어찌하여 남자와 여자들의 사랑은 길을 잃고 여기 저기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인가? 굳이 인권을 입에 올리지 않더라도, 선사시대 이래 인류생존의 기본인 사랑과 연민이 도처에서 병들어가고 있음은 반드시 바로잡아야하겠기에, 이 중병(重病)의 원인을 ‘잘 보내지 못함’이라고 이름하고 체념으로 사랑을 ‘잘 떠나 보내’는 두 곡의 노래로 ‘잘 보내지 못함’에 일말의 치료를 모의(謀議)해 본다.

첫 번째 우리가 불러볼 노래는 봄물이 흐르는 강변에 저마다 분주한 버드나무를 보면 저절로 떠오르는 노래, 「실버들」이다. 1978년도에 삼인조 여가수 희자매가 불러 한국인의 가슴을 흔들었고 지금도 못사람의 허끝을 떠나지 않는 노래. 노랫말은 김소월의 유작시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는 등 분명치 않지만 작품의 정서나 형식으로 봐서는 그의 작품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듯하다.

“실버들을 천만사 늘어놓고도 가는 봄을 잡지도 못한단 말인가 이내몸이 아무리 아쉽다기로 돌아서는 님이야 어이 잡으리 한갓되이 실버들 바람에 늙고 이내몸은 시름에 혼자 여위네 가을 바람에 풀벌레 슬피 울 때엔 외론 맘에 그대도 잠 못 이루리.”

사랑은 찾아왔기에 떠나는 바람 같은 것, 실버들을 천만사, 억만사 늘어놓아도 결코 잡을 수 없는 바람 같은 것. 내가 아무리 아쉽다고 돌아서는 사랑을 어찌 잡는다는 말인가. 잡히는 것이라면 바람이 아니듯, 이내몸이 아쉽다고 애걸복걸 붙잡는다고 어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이겠는가. 실버들이 바람에 늙듯이 나도 시름에 혼자 여위는 것이 답이다. 그러다가 가을바람에 우는 풀벌레 소리에 그대도 외로워 잠 못 이루면 그것으로 나는 위로받으리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억누르면서 끝끝내 참아내는 정한(情恨)은 우리 민족이 가진 고유하고도 보편적인 정서이다. 「실버들」에서도 소월의 「진달래꽃」에서 보여주듯 떠나는 임이 원망스럽고 붙잡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별의 슬픔을 참아내고 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정한, 즉 혼자 하는 체념이 유통기한이 다한 사랑을 잘 보내고 결국은



나를 살아남게 한다는 것이다. 감정을 있는 대로 표출하니까 결국 폭력을 넘어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결국은 자신의 인생도 끝장나는 것이다. 봄날의 강변에서 잠시 제 몸을 흔들어주고 떠나는 바람을 놓아주며 자신의 몸을 지켜내는 실버들 천만사에서 주저 없이 보내주는 체념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사랑을 본다.

두 번째 노래는 김창완의 형제들로 결성된 산울림이 1982년에 발표했던 노래 「회상」이다. 여기서도 사랑은 나도 모르게 나를 떠나버렸다. 그러나 정한(情恨)의 처방으로 얼마나 현명하게 떠난 사랑을 잘 보내는지 한번 같이 불러보자.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열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 서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우- 떠나버린 그 사람 우- 생각나네. 우- 돌아선 그 사람 우-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가슴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달빛조차 숨어 흐느끼는 너무나 가슴 아픈 떠나버린 사랑. 그러나 바로 마지막 부분에 ‘묻지 않았지’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는 떠난 사랑도 보낸 사랑도 모두 무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의 음악적이고 문학적 가치에 요셋말로 대박을 내고 있는 셈이다. 사실 스스로를 미워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 상대가 왜 떠났겠냐는 말이다. 내가 나도 모르는 이유로 상대를 나로부터 떠나게 한 것이란 말이다. 이미 돌아서 있는 상대에게 내 감정을 있는 대로 표출해서 상대가 나에게 돌아오겠는가. 혼자 어쩔 수 없는 것

이다. 감정의 직진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면 미운 건 오히려 자신이고 그러니 상대를 잘 보낼 수 있고 결국은 나의 신상도 안전한 것이며 상처가 아물면 피어날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잘 보내지 못하고 쫓아가 폭행하고 죽이고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 가겠는가.

노자(老子)는 도덕경에서 심애필대비(甚愛必大費) 지나치게 좋아하면 그만큼 대가가 크고, 다장필후망(多藏必厚亡) 너무 많이 쌓아두면 그만큼 크게 잃게 된다. 지족불욕(知足不辱) 만족할 줄 알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지지불태(知止不殆)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고 말한다. 2500여 년 전 노자는 상대를 잘 보내줌으로써 자신을 온전히 지켜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인 정한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족(知足)이요, 지지(知止)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임을 아는 것이다. 사랑이 꽃처럼 찾아와 나를 눈부시게 하였다가 꽃처럼 시들 때, 안된다고 더 피어있으라고 악쓰며 목을 비틀어야 되겠는가. 내가 눈부셨던 사랑의 시간에 힘들더라도 다만 감사해야 할 일이다. 감사한 그에게 무슨 폭력을 가한단 말인가. 떠나는 사랑을 잘 보내주는 것, 바로 나를 잘 지켜내는 것이다. 사랑은 또 찾아온다. ♪



정철웅 시인. 문학박사

문화공감\_ 김옥열의 포토에세이

# 선수 구합니다

지금 선수가 필요합니다. 침체된 나라 경제도 살려야겠고, 꺾인 국가 자존심도 바로 세워야겠고, 학폭 검폭에 시달리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 갈래로 찢긴 국민 마음도 좀 위로해야겠는데 선수가 없습니다. 경력자 우대, 초보자도 환영, 단기 아르바이트나 투잡도 가능하니, 제대로 된 선수 어디 없을까요? ♪

김옥열\_ 사진작가





# 전수구합

연봉 400만~500만원+장

- 친구 동반 가능
- 대학 아르바이트
- 경력자 우대
- 초보자 환영
- 단기 / 알바 / 투잡 환영

010-7158-0

## 재단소식

### [재단소식]

#### • 사업

##### 호남여행기 단행본 발간 및 광주시 교육청 기증식 개최



우리 재단은 작년에 이어 여행으로 만나는 광주역사문화자원 『호남여행기』 단행본을 발간했다. 호남여행기는 부산상법회의소(오늘날 상공회의소) 소속의 서기였던 일본인 마스다 고조(松田行藏, 宮崎縣 출신)가 작성한 '慶尙道全羅道旅行記事 並二農商況調査錄'이라는 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호남여행기』는 1880년대 말 호남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써 1880년대 말 호남 지역의 산천, 촌락, 체제, 거리와 인구, 농업과 상업의 실태, 생활수준과 옷차림 등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질에 이르기까지, 당시 지역민의 성향과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적어 놓아 호남 지역의 자연과 인문 환경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우리 재단은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교육청 2층 교육감실에서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에게 각 초·중·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호남여행기』 단행본 400부를 기증하였다.

**‘2023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3차 기획회의의 이모저모**  
‘2023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3차 기획회의가 지난 1월 12일(목) 18시,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그동안 기획회의에서 논했던 프로그램과 예산(안)에 대한 기조 및 방향, 각 프로그램별 사업명과 슬로건 등을 최종 점검하였다. 한편, 공모마감 기간이 설 연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획팀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무처가 작성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 • 조직

##### 2022년 재단 송년의 밤 성황리에 마쳐



2022년 재단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7일(수) 김대중컨벤션센터 델리하우스에 재단 임직원 60여 명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3년 만에 대면 만남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외부 초청 인사 없고, 특별한 형식 없이 오직 임직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호평을 받았다. 참석한 임직원들은 올해 재단 활동보고와 주흥 위원의 샌드아트 공연을 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내년 새로운 희망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다. 소중한 선물을 협찬해주신 회원, 사회와 샌드아트 공연을 재능 기부 하신 주흥 위원,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임직원께 감사드리며,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재단의 아름다운 약속’ 잊지 않고 보다 풍요로운 광주공동체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두박두박 걸어가갈 것이다.

##### 2023년 재단 연구소 첫번째 기획회의의 열려

올해 첫번째 재단 연구소 기획위원회가 지난 1월 19일(목) 오전 11시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2023년 광주시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문학) 공모사업은 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무처가 마감전까지 신청토록 위



임하였으며, 동 사업 연구원으로 노영기 교수, 김원중 실장, 자문위원으로 연구소 기획위원과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기로 하였다. 한편, 올해 연구소 기획위원회는 작년을 준용하여, 조사연구사업 프로젝트 자문위원회와 연계하여 운용하되, 사업 추진 및 연구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기로 하였다.

2023년 1차 『창』 편집위원회 개최



문화담론지 『창』 봄호(통권 60호) 발행을 위한 2023년 첫 번째 편집위원회가 1월 31일(화) 11시,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올해부터 『창』은 달라진 모습으로 회원과 독자들을 만난다. 우선 편집 디자인 및 평이한 서체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기획연재 코너를 넣어서 재밌고 알차게 내용을 구성하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만평과 회원의 작품 소개 코너 등을 신설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모임부터 김정희 위원 추천으로 정철웅 전서영대학교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일부 위원 개편을 단행했으며, 『창』이 보다 나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기로 하였다.

2023년 1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 열려

2023년 1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지난 2월 22일(수)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임원(운영위원, 편집위원 각 1인) 선임 등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결산 완료 및 공모 사업 선정 반영에 따른 추경 예산안은 확정하였다. 한편, 올해 사업은 기존의 재단 주요 영역별 사업을 유지하되 연석회의에서 제안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상반기 안에 계획안을 만들어 하반기에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기로 하였다.

• 연대

ACC 개관 7주년 시민대토론회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2022년 12월 14일(수) 오후 2시에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국제회의실&온라인에서 ACC개관 7주년 시민대토론회가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환경·사회·경제 가치의 조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생태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공간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의미있는 만남이었다.

## 재단·회원소식



### 시민사회 2023 합동시무식 가져



‘2023년 시민사회 합동 시무식이 1월 2일(월) 11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광주NGO센터, 광주시민협, 광주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한 시무식에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하여 정의와 민주를 위해 희생하신 오월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올 한해도 광주공동체 실현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참배 후에는 식사와 덕담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검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토론회 이모저모



‘검은 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광주시 주최 시민토론회가 지난 2월 28일(화) 오후 3시,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열렸다. 여전히 존치-철거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으나 열린 공간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첫 공론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이날 시민토론회는 우리 재단 이기훈 상임이사가 사회를 맡고 주홍 작가, 홍성철 옛 전남도청복원범시민모임대책위 집행위원장이 각 ‘존치’와 ‘철거’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하성흠 한국화학작가, 조경웅 영상작가,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 허달용 전 민예총 회장이 참여했다.

### [회원소식]

“회원님들의 소식을 받습니다”  
회원님들의 기쁘고 축하할만한 소식을  
『창』에 실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 이이남 회원(미디어아트 작가), 이이남 개인전 ‘조우’

##### 서울서 4월 16일까지...새로운 경험 선사

지역 출신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이 서울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그동안 그는 친숙하지만 어렵게만 느껴졌던 명작에 관객들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시리즈를 선보여 왔던 만큼 이번 서울 전시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입은 동서양의 명작들을 새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이남 개인전 ‘조우(遭遇) : Encounter’가 오는 4월 16일까지 서울 엔버갤러리에서 열린다. 디지털 기술과 동서양 고전의 만남으로 시공간을 관통하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인왕제색도’, ‘몽유도원도’, ‘박연폭포’와 같은 전통 산수화, 수목화에 디지털 기술을 더한 미디어아트 작품, ‘모나리자’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등 서양 고전 회화를 차용한 ‘꽃은 어디에서 오는가’ 연작 등을 선보인다. 이이남 작가는 “친숙하지만 한편으로는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지는 명작들을 21세기 관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고 싶다”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무등일보> 발췌

#### 김옥렬 이사(다큐디자인 대표), 신문 역사 집대성...

##### 『광주·전남 지역 신문 100년』 발간

광주·전남 지역의 신문 발전 과정을 담은 『광주·전남 지역 신문 100년』이 발간됐다.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연구소는 최근 구한말부터 5공화국까지 광주·전남 지역 신문의 태동과 발전 과정을 집대성한 『광주·전남 신문 100년』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에서 간단한 자료집 이외에 신문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 없었다. 이 책은 신문 발전 과정이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돼 의미가 더욱 크다. 『광주·전남 신문 100년』은 신문이 첫 발간된 구한말부터 1987년 언론자유화 조치 이전까지의 신문 역사를 다뤘다. 내용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지역신문 발하기) ▲미군정기(지역신문의 태동과 형성기) ▲이승만 정권기(정파적 지역신문 정립기) ▲박정희 정권기(상업주의 지역신문의 성장기) ▲전두환 정권기(지역신문 암흑기) 등이다. 책은 유종원 언론홍보연구소장과 김승희 언론학 박사, 김옥렬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등이

공동 집필했다.

- <뉴시스> 발췌

김향득 편집위원(다큐멘터리 사진작가),

5·18고등학생동지회 『5월 새벽을 지킨 소년들』 펴내

1980년 5월 당시 10대의 나이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던 초·중·고등학생들의 활동을 다룬 책이 처음으로 발간됐다. 5·18민중항쟁고등학생동지회는 27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1층에서 『5월 새벽을 지킨 소년들』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전남 시위 현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10대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책에는 최연소 희생자인 전재수(당시 효덕초 4년) 열사와 5월 27일 끝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했던 박성용(조대부고 3년), 안중필(광주상고 3년) 열사를 비롯해 박기현(동신중 3년), 박금희(춘태여상 3년), 전영진(대동고 3년), 박현숙(신의여고 3년) 열사 등 21명의 이야기가 담겼다. 책 말미에 5·18 관련 광주·전남·북 90개 학교별 사망·구속·부상자 293명의 명단을 실은 점에도 이 같은 사명감이 담겼다. 동지회는 이들의 이야기를 30여 명씩 묶어 시리즈로 출간하겠다는 각오다. 동지회는 출간 기념회 이후 곧장 2편 제작에 착수할 계획이다.

- <광주일보> 발췌

한선 운영위원(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선 호남대 교수, 문체부장관 표창’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과장 한선 교수가 13일 오전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미디어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 교수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 범위가 신문과 방송에 제한돼 있는 현행 언론중재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마련한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해 관련법 개정에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제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교수는 언론중재위원을 비롯해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광주KBS 시청자위원 ▲광주문화재단 비상임 이사 ▲지역방송발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전남매일> 발췌

노영기 기획위원(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5·18 연구 남은 과제는...조선대-5·18기념재단, 학술집담회

기존 5·18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당시 광주 시민들의 개인 일기나 항쟁 속 여성의 역할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시됐다.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과 5·18기념재단은 13일 조선대학교에서 학술집담회를 열고 5·18 연구의 남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발표에 나선 조선대학교 노영기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5·18 연구에서 시민의 개인 일기가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그동안 5·18 연구가 주로 사실 규명과 이해에 집중된 탓에 개인이 5·18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일기 자료는 개인의 일상만이 아닌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발췌

### “환영합니다”

#### 신규회원

- 신웅주(조선대 교수)
- 고옥란(문화해설사)
- 정성일(광주여대 교수)
- 윤상호(공무원)
- 임종모(정당인)
- 정용택(직장인)
- 박종렬(여행사 대표)
- 이경훈(공무원)
- 정정숙(광주관광재단 팀장)
- 허경(공무원)
- 김경보(공무원)
- 김성진(아시아치매연구재단 이사장)

#### 신규임원

- 운영위원 - 송지나(음악/공연기획 전문가)
- 운영위원 - 김경한(영보이스토리 대표)
- 운영위원 - 김병희  
(강진군 지역문화활력촉진 사업 단장)
- 편집위원 - 정철웅(전 서영대 교수)

# 함께하는 사람들



##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 이사회

#### 〈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 〈부이사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 〈이사〉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성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김영주 (주)광주전남ICT협회 회장

김옥렬 (주)다큐디자인 대표

김정희 시인『광주문학』편집주간

김하림 조선대 명예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부회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박종찬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양봉모 불교방송 총괄본부장

오건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정현애 흥복학원 이사장

지형원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회장

#### 〈감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협회 고문

최회용 세무사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장〉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주 흥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 〈운영위원〉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사무총장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총괄지원연구관

김성환 서구청 문화정책 전문위원

김윤아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협의회 정책팀장

김향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송지나 음악·공연기획 전문가

윤준혁 (주)지니엑스 대표

이상필 동신대 교수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창원문화관광연구실장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경한 영보이스토리 대표

김병희 강진군 지역문화활력촉진 사업 단장

## 연구소 기획위원회

### 〈연구소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 〈기획위원〉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원중 전 지역문화컨텐츠연구소 연구실장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국형렬 금호시스템 부장

김동규 준이앤씨 대표

김병균 강토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성환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용혁 (주)페르소나시 본부장

손용만 광주관광협회 사무국장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정광민 서로 건축사무소 대표

황재익 (주)오스메딕 대표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옥열 (주)다큐디자인 대표

<편집위원>

김정희 시인, 『광주문학』 편집주간

김향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정철웅 시인, 문학박사

고문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이지호 사업팀장

김혜라 간사

현서라 청년인턴

후원회원 가입 안내

지역문화교류 패러다임의 견인차로서  
작은 씨앗을 뿌린 지 어느 덧 18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플뿌리 시민문화재단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우리 재단은 더 많은 인과 덕의 향기로  
사람들이 절로 모여드는  
사랑받는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문화발전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자 합니다.

회원구분

- 평생회원(100만 원 이상 후원회원)
- 유지회원(월 1만 원 이상, 1년 일시불 납부 가능)
- 후원계좌 : 광주은행 019-107-318262
- 예 금 주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문 의 : 062-234-2727 /



이메일: r-cultural@hanmail.net

재단홈페이지(www.rcef.or.kr)에서도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회원이 되시면,  
회원으로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시고  
후원해주신 회비는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대명매

봄 꽃중에 으뜸은 역시 봄매화라.  
전남대학교 구내에는 수령 400년이 된 매화나무가 한 그루 있다. '대명매(大明梅)'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추운 겨울을 이겨낸 선비의 절개가 그대로 느껴진다. 새학기 봄을 맞은 전남대학교 캠퍼스 안에 대명매의 그윽한 향기가 가득하다.

편집 후기

만물이 생동합니다. 마치 경쟁하듯 꽃을 피워내는 자연이 고맙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근래 보기 드문 겨울가  
뭍으로 힘들었지만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온갖 봄꽃들이 만방을 물들이는 좋은 계절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만사는 때는 물론이요 규칙이나 질서도 없이 뒤죽박죽입니다. 왜 그래야하만 하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이상하고 거북한 일들을 인간은 서슴없이 하니까요. 김덕진 이사장님 말씀따라나 광기어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문화현상을 애정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걱정하고 잘되도록 지혜를 짜내는 일에 나서야 합  
니다. 그 첨병 역할을 하는 『창』이 이번 봄호 특집으로 아문도시 정착을 위한 문제와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선이 엇갈리는 '검은 비' 문제의 해법까지, 지역의 쟁쟁한 필자들이 좋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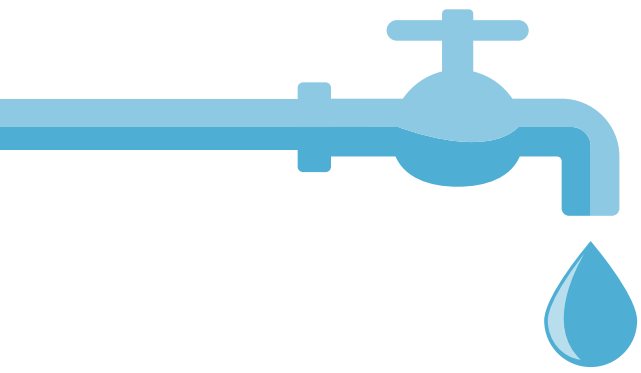
북 채만 들고 외길 인생을 걸어온 쌍채북춤보존회 내드름 박병주 대표의 인터뷰가 인상적입니다. 한 가지 일  
을 고수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분들의 고집스러운 삶과 예술이 보이는 듯해서 좋았습니다.

건축과 광주문화를 주제로 새롭게 시작한 기획연재도 편집위원회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  
요. 그리고 새로 복원한 희경루 이야기 등 문화관 다양한 이야기들도 흥미있네요.

좋은 글들을 보내주신 여러 필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편집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 새봄 만끽하십시오. 여름호로 찾아 뵙겠습니다.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 이대로라면 봄부터 제한급수

## 물 아껴쓰기 함께해요



설거지통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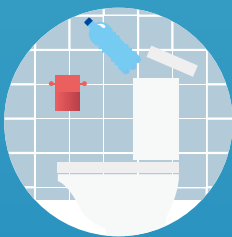
세탁은  
한꺼번에



양치컵  
사용



수압은  
낮추기



변기에  
물병 놓기



세차는  
나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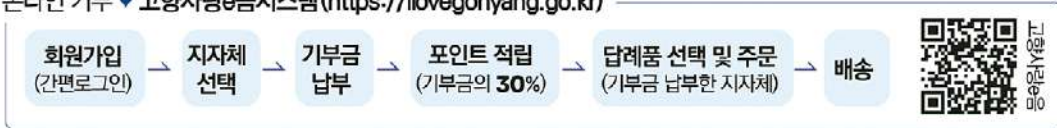
# 광주 서구 고향사랑기부제

내 고향 광주광역시 서구에 기부해서  
혜택받고! 내 고향도 살리고!

기부금액	기부혜택
<b>500</b> 만원 까지	<b>30%</b> + <b>10</b> 만원 이하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능	기부금의 30% 답례품 제공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이하)

※ 광주서구민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서구 제외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방법** 오프라인 기부 ♥ NH 농협은행 창구(전국 약 5,900개 지점), 지자체 방문 접수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시스템 (<https://ilovegohyang.go.kr>)



기부문의 서구청 고향사랑기부팀 062-360-7671